

주철현-이용주 고교·검찰 선후배...경쟁 치열

4·15 총선, 이곳이 관심 선거구
<8>여수갑

여수갑 선거구에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61) 후보와 미래통합당 심정우(60),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수희(51), 무소속 이용주(51) 후보가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당 후보인 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이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낸 민주당 주철현 후보는 여수갑 지역위원장도 맡고 있는 만큼 탄탄한 당 조직과 높은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여수시장 재임기간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통해 '관광객 1300만명 시대'를 여는 등 여수를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재임시절 터져나온 '상포지구 특혜 의혹'이 주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장기간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대 후보인 무소속 이용주 후보가 지속적인 네거티브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주 후보 측은 "네거티브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여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 후보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차기 정권 재집권을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호남에서부터 민주당으로 결집해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경쟁 후보들에 비해 여수를 가장 잘 아는 여수 전문가이고, 여수 발전과 지역 화합을 위한 책임자다"면서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만이 지역민의 요구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구 3개 권역을 돌면서 시민, 당원들과 함께 '시민공약'을 발굴해 주요 공약을 만들었다. 주 후보는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과 여수 유치, 여수항을 해양 물류 및 오일 허브항으로 육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여수~서울 간 2시간 대 생활권, 여수산업단지 플랜트 건설노동자 복지관 건립, 원도심 활성화, 여성장애인 인력개발센터 설치,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 등을

				
정당	민주당	미래통합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무소속
이름	주철현(61)	심정우(60)	장수희(51)	이용주(51)
학력	성균관대법학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성의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경력	(현)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장	(전)국회입법조사관 (전)호남대학교 교수	(전)유통업 (현)부동산업	(현)제20대 국회의원
주요 공약	·한국해양관광공사 여수 유치 ·여수항 동북아 해양물류 거점항 육성	·국립대학교급 종합병원 유치 ·여순사건 진실 규명	·출산수당 5000만원 지급 ·국민배당금 1인당 월 150만원 지급	·올촌 2·3 산단 조기 착공 ·여수 농수산 식품산업클러스터 센터 건립

민주 주철현, 조직 탄탄·높은 인지도 강점
무소속 이용주, 정치 경험 강조 재선 도전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도 표심 공략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는 20년 간 지역사회 봉사한 결과를 여수 유권자들에게 평가받겠다면서 표밭을 다지고 있다. 심 후보는 여수시 추천으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다른 경쟁 후보에 비해 2배 더 지역사회를 위해 일했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립대학교급 종합병원 유치, 202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 여순사건 진실규명 등을 꼽았다.

무소속 이용주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옷을 입고 출마, '녹색돌풍'에 힘입어 43.91%의 높은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 후보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는 등 정치적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면서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활동하며 '버럭 요정'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17번이나 이어진 호통과 질문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면서 '정문화 저격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자신이 발의했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고, '주책 죄다 보유' 국회의원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바람'이 거센 만큼 선거사무실 외벽에 '당선되면 더불어민주당에 반드시 입당하겠다'는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민주당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반납하고, 당선되더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세비 전액 반납을 결심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함께 힘을 싣고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수에도 대중적인 정치인, 큰 정치인이 필요한 만큼 더 큰 여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올촌 제2, 3산단 조기 착공을 통해 여수산단의 공장 부지난을 해소하고 대기업 수준의 기업 유치, 산단 내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통한 KTX 증편과 SRT 도입, 여수 농수산 식품산업 클러스터 센터 건립, 요트 마리나 시티 조성, 여문 행정복합청사 건립, 원도심 재개발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활짝 핀 온정

이마트연합·중 기업·라이온스클럽, 광주시에 성금·물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정의 마음이 지역과 국경을 넘어 활짝 피었다.

광주시는 8일 "광주권 이마트연합, 중기업 NICE, 국제라이온스협회 호남라이온스클럽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물품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광주 소재 이마트 4개점(광주점·광산점·동광주점·봉선점)이 함께한 광주권 이마트연합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1250개를 (사)광주시지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비즈니스 마케팅·컨설팅 전문 중국기업 NICE는 광주시민을 위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마스크 2750개를 전달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호남라이온스클럽도 이날 회원 50여명이 모은 성금 300만원 (사)광주시지원봉사센터에 기부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디케이㈜, 주광주중국총영사관, 광주전남중국박사학회 합회·전남대중국유학생회, 광주시투자협회 중국기업 IIE스타그룹, ㈜대광건

영, 광주시체육회 등이 광주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했다.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은 마스크 1만장을, 광주전남중국박사연합회와 전남대중국유학생회는 성금 470만원을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부에 전달했다.

쑤시엔위 주광주중국총영사는 "중국과 한국은 '수망상조 동주공제(守望相助 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듯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이웃'이라며 "코로나19로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광주가 조속히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광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중국 북경 소재의 글로벌 콘텐츠 제작·유통회사 IIE스타그룹도 광주시민을 위해 마스크 1만장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대광건영은 4월7일 창립 26주년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882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인공지능산업 인프라 구축 시동

첨단3단지 집적단지 조성

연내 착공 목표 설계 공모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선언한 광주시가 관련 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인 집적단지 조성의 첫발을 뗐다. 연내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인공지능 산업 요람을 만들기 위한 건축 절차가 시작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도시공사는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공간 건축 설계용역 제안 공모를 공고했다. 광주 첨단 3지구 4만6200㎡에 공사비 599억5000여만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계비는 29억6500여만원이다.

주요 시설은 창업동, 데이터센터, 미래차-에너지-헬스케어 등 실증동,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이며 전체 연면적은 2만

4250㎡이다.

도시공사는 13일 응모 신청서, 27일 제안서를 각각 접수하고 28일 제안서 심사와 결과 발표를 거쳐 5월 1일 계약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연내 실시계획 승인, 착공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면 접촉 제한으로 지연된 행정 절차도 함께 추진한다.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부 산업입지 정책 심의회,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광주시가 정부에 신청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광주시가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추진 전략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롯데마트·백화점, 대파농가 돕기 특판행사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전남도와 롯데마트·롯데백화점이 손잡고 전남산 대파 판매전에 나선다. 전남도와 롯데마트는 학교 급식 중단과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파 농가를 돕기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대파 농가 돕기 1+

1 특판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대파 1단을 사면 1단 더 주는 행사로 총 2단을 1980원에 살 수 있으며, 롯데마트 125개 전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전남도는 신안 대파 100t과 친환경 학교급식 대파 10t을 공수해 농가 돕기에 나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판세 분석

여수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무소속 이용주 후보 간 경쟁이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특히 고등학교와 검찰 선후배로 절친했던 두 후보 간 대결이 이뤄지는 만큼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크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두 후보는 서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면서 이미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너 모양새다.

선거를 일주일 남겨놓은 가운데 여수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주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탓에 '민주당 바람'이 거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소속 이 후보도 현역 의원인데다 지역 내 인지도가 높은 만큼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주 후보는 당내 후보 경선을 통과한 뒤 지역구 사·도 의원과 탈당했던 전직 지방의원들까지 합류한 '민주당 원팀'을 구성하면서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무소속 이 후보는 현역 의원인 만큼 기존 조직을 통한 세 확산에 나서면서 '당선 후 민주당 입당'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층까지 공략하고 있다. 선고 공보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 입당을 강조하면서 '문재인·민주당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이번 선거가 끝나고 탈당했던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고 못을 박은 만큼 이 후보의 '민주당 입당 전략'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여수갑 선거구는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주 후보 시장 재직시절의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주 후보에게 '상포지구 특혜 의혹' 프레임에 씌우고 있다. 반면, 주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프레임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특히 이 후보 측은 자신의 정책 보다는 대부분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거리 곳곳에 내걸어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주 후보 측은 "네거티브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여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주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장기간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포지구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가 이번 총선에서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소속 이 후보도 선거기간 중 '음주운전' '죄다 주책 보유자'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씻어내느냐가 당락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